선거 후의 볼리비아:
에보 체제는 어디로 가나?

빠블로 스떼파노니*

2009년 12월 6일 선거에서 64%의 득표율을 기록한 에보 모랄레스의 승리는 볼리비아 정치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고, 1952년 이래로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를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리비아 정치과정의 정확한 특징을 둘러싸고 경제공동체적이고 반(反)근대적인 새로운 미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원주민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다.

이 글은 정치·사회적 접근을 통해 현재 변화과정의 사회적 토대(그리고 양면성)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오늘날 과거 50년대보다도 더 원주민적인 모습으로 제시된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근대화, 산업화, 개발주의적 상상력을 거의 완벽하게 회복하고 정부 여당의 통합적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민중적 내셔널리즘을 정의할 수 있게 해준다.

핵심어: elecciones/ indigenismo/ nacionalismo/ posneoliberalismo/ Evo Morales/ Bolivia; 선거/ 인디헤니스즘/ 내셔널리즘/ 포스트신자유주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12월 6일 선거에서 64%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에보 모랄레스의 압도적인 재선은 볼리비아 정치판을 완전히 새롭게 짰다. 1952년 민족 혁명(Revolución Nacional) 시기 이후 한 정당이 이처럼 광범위한 헤게모니를 획득하고, 입법부의 양원을 통제하며, 따라서 사법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보 모랄레스로 대표되는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적 저항 세력이었던 이른바 메디아 루나(media luna) 지역은 해체되었다. 의회 내 정치적인 반대 세력은 통합적 리더십을 갖지 못하고 분열되었다. 또한, MAS(Movimiento al Socialismo)의 정치적 영향력은 동부의 자치를 주장하는 지역까지 확대되었다.[1] 따라서 언론과 학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쟁은 현 정부의 급진화가 갖는 의도 및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다.

---

* 신문기자이자 경제학자. 볼리비아 라빠스에서 *Le Monde diplomatique* 볼리비아판 편집장이자 일간지 *Clarín*(부에노스아이레스)와 주간지 *Brecha*(우루과이)의 통신원으로 활동.

1) 에보 모랄레스의 득표는 메디아 루나 전 지역에서 증가했다. 따리하(Tarija)에서 승리했으며, 비록 베니(Beni), 빤도(Pando) 그리고 산따끄루스(Santa Cruz)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득표율은 의미 있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지역주의적 반대세력의 중심지역인 산따끄루스에서도 41%를 득표했다.

에보 모랄레스의 반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적인 표현들은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정치사회학적인 접근은 작금의 변화 과정 기저에 있는 사회적 토대(그리고 양면성)를 해명해 준다. 즉, 여당의 통합을 위한 핵심적 요소인 민중적 내셔널리즘이 50년대 보다는 더 원주민적인 측면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하게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개발주의적 상상력을 복원하고 있다. 이 상상력은 부통령인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Álvaro García Linera)의 "보호자로서 사회·생산적 국가(Estado productivo social protector)" 제안에 요약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정책에는 실체도 없이 '복지'에 대한 몇몇 정부 부문의 '빠차마마적(pachamámica)'인, 또 주변적이면서 충분히 수사적인 표현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2)]

그렇지만 주변부에서의 저항과 경제공동체적이고 반(反)근대적인 가상적 혁명 —'저항적 원주민'의 일련의 이미지들과 적절하게 무르익은— 에 대한 낭만적인 끌림은 항상 동원가능하다. 마르끄 생-뛰뻬리는 이것을 라틴아메리카의 "동쪽 끝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곧잘 손쉽게 발견되는 "값싼 희망"이라고 명명한다.[3)] 몇몇 탈식민적 흐름들은 자주 이러한 종류의 감수성을 표현한다.[4)] 그러나 선한 야만이라는 이상화된 관점에 반발하는, '탈신화적인'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반대의 '종족혐오적인' 위험 또한 존재한다. 즉, 추상적 보편주의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정체성의 탈본질화를 통해 원주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다. 이렇게 해서 특정한 맥락에서 이러한 정체성이 의심할 여지없이 자신들을 존재하게 하는 강력한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 내면서 작동하는 이유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간과한다. 즉, 민중적이고 원주민적인 권력의 강화는 오늘날 부정할 수 없으며, 선거를 통해 나타난 에보 모랄레스의 거대한 정당성의 근원이 되고 있다.[5)] 그러나

---

2) "Evo promete industrias en 5 años"와 "No hay una agenda oculta: la Constitución respeta la propiedad," *Clarin*, 알바로 가르시아 니네라 인터뷰, 2009. 12. 5일자.

3) *El sueño de Bolívar. El desafío de las izquierdas sudamericanas*, Paidós, Barcelona, 2008.

4) Walter Mignolo, "Evo Morales, ¿giro a la izquierda o giro descolonial?" en *Democracias en desconfianzas. Ensayos de sociedad civil y política en América latina*, Coscoroba, Montevideo, 2006. 이에 대한 비판을 위해 다음 글을 참고하시오. Silvia Rivera Cusicanqui, "*Ch'ixinakax utxiva*. Prácticas y pensamientos descolonizadores" en *Le Monde diplomatique*, edición boliviana, 2009.12.

5) 이런 보편주의적이고 반(反)종족적 공화주의는 장-피에르 라보(Jean-Pierre Lavaud)의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펠리뻬 끼스뻬(Felipe Quispe)를 프랑스 극우파

이런 극단적인 입장들 사이에서 정치 사회적인 접근이 가능할까? 이것이 이 글의 주안점이다. 이 안에서 우리는 2006년 에보 모랄레스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시작된 정치·사회적 과정에 대한 '치밀한 묘사'를 제안할 것이다. 20세기 동안 주기적인 '자유주의'의 복원을 가지고 볼리비아를 변모시켜왔던 다채로운 국가-민중 역사와의 부정할 수 없는 단절뿐만 아니라 명백한 지속성까지도 고려하면서 말이다. 여기서 시작해 에보주의의 미래와 관련된 몇 개의 가정들을 검토해 보겠다.

I. 기원: MAS 혹은 대(對)도시 선거포위

1995년 "대지와 영토 회의(Congreso Tierra y Territorio)"는 이른바 "정치기구(Instrumento Político)" 테제를 승인했다. 이 기구는 농민조합 구조에 기반하여 구성된 복합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농촌 조직 결성의 핵심은 차빠레(Chapare) 지역의 코카 재배자(오늘날 "상호문화적 공동체"라고 불리는), 꼬차밤바(Cochabamba) 계곡의 농민 그리고 바르톨리나 시사 여성 연맹(Federación de Mujeres Bartolina Sisa)이었다. 그리고 모체 조직이었던 볼리비아 농민노동자 단일노동조합동맹(CSUTCB)이 주도권을 잡았다.

(아메리카 정복 500년에 대한 공식적인 기념 분위기에 반대하여 조직된) "저항의 500년" 전선에 의해 강화된 원주민주의 담론으로 인해 이중으로 은폐되어 있을지라도, 이 정치기구는 사회학자 레네 사발레따가 이미 인지했듯이, 볼리비아 민중운동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노동조합 문화와의 강력하고 역사적인 친연성을 표현했다.[6] 이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종의 뿔라까요 테제(Tesis de Pulacayo)[7]로, 이 시대적 조건은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헤게모니,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가정,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기간 조직으로 활동해 왔던 볼리비아전국노동조합(Central Obrera Boliviana: COB)의 위기에 의해 타격을 받은 볼리비아 하위주체 부문들이 겪었던, 기본적으로 방어적이었고 또 자주 패배했던

지도자인 장-마리 르 뻰과 비교한다.

6) "Las masas en noviembre" in R. Zavaleta(eds.), *Bolivia hoy*, Siglo Veintiuno Editores, México, 1983.

7) 이 테제는 1946년 플라카요 지역에서 승인되었고, 트로츠키주의의 영향력이 강력한 시기에 노동자 정부라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일련의 투쟁들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 1947년 광부 연맹이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투표 영향력을 가지고 오루로와 포토시에서 상하원 의원들을 조직화 했다면,[8] MAS-IPSP는 알레호 벨리스(Alejo Véliz)와 에보 모랄레스 사이에 원칙적으로 공유된 지도력에 기반하여 코카 재배지인 차빠레와 꼬차밤바 계곡에서 전국적인 정치 무대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광부들처럼, 코카 재배자들은 민중 운동의 전위임을 자각하기—정당한 이유를 가지고—시작했다.

실제로, 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압력으로 여러 정부가 연속적으로 추진했던 코카잎 제거 정책은 꼬차밤바-산따끄루스 간 기간 도로에 자리한 차빠레에 독특한 정치 및 선거 지형을 형성했다. 전국적인 퇴조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좌파가 헤게모니를 유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좌파는 민주민중연합(Unidad Democrática y Popular: UDP)이 주도하던 개혁주의 정부의 돌발적인 위기, 1985년 생명을 위한 전진(Marcha por la Vida)에서 드러난 광산 노조운동의 패배[9] 그리고 새로운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에 의해 그 영향력을 상실했다.

"코카잎 지키기(defensa de la hoja de coca)"는 미국의 개입에 대한 고발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판을 코카 재배자들의 협업적 이익에 따라 구조화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절정기인 1989년 선거에서 농업 부문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받은 좌파연합(Izquierda Unida)이 승리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을 몰아세우던 '제국'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인식된 좌파에 대한 코카 재배업자들(일정한 사회적 변동성을 가진 지역의 소지주들)의 방법론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점점 더 정치화된 조합 활동주의가 전국적 문제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 주었다.[10] 그리고 지나는 길에 지적하자면, 이를 통해 농민들이 정치적 의식화를 통해 정치판에 참여하고, 또 앞서 말한 정치기구(IPSP)

8) Jorge Komadina y Céline Geoffory, *El poder del movimiento político. Estrategias, tramas organizativas e identidad del MAS en Cochabamba(1999-2005)*, UMSS DIC y T-CESU/ PIEB, LA PAZ, 2007.

9) Á. García Linera, *La condición obrera. Estructuras materiales y simbólicas del proletariado de la Minería Mediana(1950-1999)*, Muela del Diablo Editores/ IDIS-UMSA, La Paz, 2001.

10) 이것은 또한 하이메 빠스 사모라(Jaime Paz Zamora의 지도(1989-1993) 아래, 유엔이 정한 금지 물질 목록에서 자연 상태로 된 이 작물을 빼도록 하는 코카 외교정책을 추진한 혁명좌파운동(Movimiento de Izquierda Revolucionaria, MIR)의 득표율을 설명해 준다. 게다가, 미국과의 긴장은 주요 정당 지도자들의 비자 취소로 이어졌다.

의 발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에보 모랄레스가 1997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61.8%)로 소선거구에서 하원의원에 선출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좌파연합은 완전히 코카 재배자들로 구성된 유권자들에게서 80%에 육박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결과는 이들이 국민투표 성격의 선거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의회에서 코카 재배업자들의 조합 대표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조합들의 모든 조직적 역량이 선거 투쟁에 집중되었다.[11]

전국선거재판소(Corte Nacional Electoral)가 이 정치기구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농민 조합들은 전통적인 좌파와 연대했고 또 어떤 식으로든 전통적인 좌파를 잠식하게 된다. 아이마라 족이 거주하는 알띠쁠라노(Altiplano) 지역과 달리, 차빠레 지역에는 다양한 원주민주의 분파들의 일정한 영향력과 함께 좌파 조직들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코카 재배자 담론의 강력한 원주민화 과정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이 과정은 코카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국가의 존엄'이라는 층위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 이외에도, 경제적인 요구("코카는 우리 후손을 위한 교육이다")와 함께 작물의 '신성한 잎사귀'라는 성격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벨리스와 모랄레스 사이의 정치적 결별(농민들 사이의 강력한 분파주의의 산물) 이후, 1999년 민중주권을 위한 정치기구(Instrumento Polític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 IPSP)가 구성되었다. 이 조직은 오늘날까지 MAS(Movimiento al Socialismo)의 이름으로 선거에 입후보하고 있다. 이 약어는 볼리비아 팔랑헤당(Falange Socialista Boliviana, FSB)에서 좌파로 전환한 소규모 노동자 그룹이 분리되면서 만들어졌다.

'정치기구'라는 아이디어를 낸 지도자들은 다양했다. 그러나 일련의 비정부기구들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들 중 몇몇은 가톨릭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또마스 까따리 폴리테크닉 연구소(Instituto Politécnico Tomás Katari), 농민진흥 및 연구센터(CIPC), 사회적 실천을 위한 전국 조직연합(UNITAS), 교육진흥기구연합(AIPE), 그리고 로욜라 문화행동재단(Fundación Acción Cultural Loyola)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의해 만들어진 니나(NINA, 케추아나 아이마라어로 불을 뜻함) 프로그램과 결합되어 있었다. 이 컨소시엄의 대표자는 현 외무장관인 다　초케우안카(David Choquehuanca)였다. 여기에 현 정부의 많은 장관들을 배출해 낸 법률 연구 및 사회조사

11) Salvador Romero Ballivián, *Geografía electoral de Bolivia*, Fundemos/Fundación Hanns Seidel, La Paz, 2003.

센터(Centro de Estudios Jurídicos e Investigación Social)같은 다른 조직들이 더해졌다. 이런 비정부기구들은 수십 개의 워크숍과 농민위원회를 출현시켰고, 이것들이 고지대와 저지대의 원주민 조직들과 노동조합의 절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전국적인, 심지어는 국제적인 무대로 에보 모랄레스의 지도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MAS-IPSP의 선거 승리는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즉, 민주선거 투쟁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정렬해 내고, '구 좌파'의 반자본주의 담론을 뒤로 밀어내었다(그리고 차빠레 지역에서 무장군대를 제안했던 사람들을 약화시켰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족적이고 반(反)신자유주의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것으로, 1985년 이후 실시된 민영화('자본주의화') 정책의 영향에 대한 고발, 국가적인 문제를 초국적인 단위와 '제국'(보다 정확하게 미국)에 끼워 넣는 것에 대한 거부에 집중된다. 모이라 수아소(Moira Zuazo)는 이를 볼리비아 정치의 "지방화"라고 명명했는데, 2005년 12월 18일 치러진 대선에서 거의 54%의 득표율로 모랄레스가 승리한 것에서 그 모멘텀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잘 작동하는 곳에서는 분리된 형태의 MAS 조직이 불필요하다"는 모랄레스의 말에 표현된 정치기구의 명제는 그 한계를 보여주었다. 즉, 도시에는 조합에 대한 충성심을 갖지 않는 개인화된 시민 대중이 존재했다. MAS가 전국적인 헤게모니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추동해야만 했다. 상인 조합 중에서 라빠스의 애국행동(Condepa)과 산따끄루스의 시민연대연합(UCS)같은 '네오포퓰리즘적'[12]인 정당의 유산을 대규모로 잇고 있는 MAS 관련 도시 세력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또한, 이 두 도시에서 정치·선거 조직이자 동원 가능한 거대한 세력이 출현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2004년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농민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완화하고 도시지역의 득표를 위해 MAS는 중산계층을 유인하는 것도 필요했다. MAS는 주로 간접 정당[13]으로 태동했기 때문에(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당원들이 자신의 노동조합 조직을 통해 이 정당에 접근할 수 있었다), 중산층의 참여는 '초빙된' 인물을 통한 복합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이것은 이러한 단체들의 종속적 성격을 즉각적으로 명확하게 해 준다('조언가'가 이전의 유기적

12) Stéphanie Alenda Mary, "Condepa y UCS, ¿fin del populismo?" in *Opiniones y Análisis*, 57, La Paz, 2002.

13) Maurice Duverger, *Les partis politiques*, Seuil, París, 1951.

‘지식인’을 대체한 것이다). MAS 내부에서 불신이 곧잘 농민과 도시민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았다.

주요 전국정당으로 변모했던 2004년부터 도시로 팽창했음에도 불구하고, MAS는 농민정당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모습을 유지했다. 사회적 동원과 선거 참여를 결합하는 전략 내에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거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MAS의 성장은 은유적으로 대도시에 대한 일종의 ‘마오주의적인 포위’와 비교될 수 있다. 이것의 증거는 MAS의 일부 도시 부문들이 정부나 당에서 직책을 얻기 위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농민조직들과 자주 연대해 왔다는 점이다(농민이 된다는 것 혹은 그들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집권 여당 내에서 플러스 요소이다).[14]

확실히 2002년부터 기록된 선거를 통한 급격한 성장은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었고, 내적 긴장을 발생시켰다. 즉, ‘초빙된 인물들’은 의회 및 여타 사회, 교육 그리고 종족적 자본을 이용하는 전통적 공간에서 MAS주의 토대조직을 헤게모니화 하고자 했다. 이 토대조직이 많은 수의 농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AS의 대변인들은 자주 언론에 의존했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단일한 정당 구조도 없이 이루어진 (MAS의 전국 지도부는 내부의 유사한 다양성을 담아낼 수 없었고, 더욱이 이것들을 결합할 수도 없었다) MAS의 성장은 일종의 ‘위성적’ 구조에서 유래했다. 즉, 의회 조직, 사회 조직, 구성 조직 그리고 도시의 지도부들은 에보 모랄레스의 카리스마 넘치는 중재를 통해 결합했다. 에보 모랄레스는 이런 다양한 사회, 정치적 영역들 사이에서 심판의 역할을 수행했다. MAS의 외연 조직에서 진정한 이데올로기 토론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각 대표단은 다양한 혹은 적대적인 입장들을 표명하는 다른 발표자들과의 논쟁을 벌이지 않고 에보 모랄레스를 위해 발언했다는 것도 징후적이다(게다가, 국가적-민중적-원주민적인 관료주의 언어(langue de bois)가 담론들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이데올로기 논쟁’의 순간들은 졸린 대표자들이 유별난 힘을 회복하는 때인 지도자들의 전략적인 선출만큼 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런 일반적인 묘사는 각 정파 모임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S의 이데올로기를 정의하려는 까다로운 목표를 다루는 개별 MAS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동일한 대답에

14) 이런 관찰은 Hervé Do Alto에게 빚지고 있다.

도달한다. 즉, "MAS에는 맑스주의 경향, 원주민적 경향 그리고 해방신학에서 나온 경향들이 존재 한다"는 대답 말이다.

이러한 경향들 중 어느 것도 원래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조사해 보면 된다. 게다가, 징후적으로 1950년대에서 물려받은 담론적 모체가 정치·선거적인 측면에서 가장 생산적인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민중적 내셔널리즘을 추정적인 하나의 분파로만 언급하지 않는다. 즉, 자연자원의 회수, 민중과 과두층 사이의 결합이자(이것은 민족적 계급들과 매판적인 계급들 사이, 국가 대 반국가 사이의 대립을 인내한다), 기본적으로 반미주의적인 강력한 반제국주의로서 정치판을 조직하는 담론이 그것이다. 이런 경향 외에 관찰할 수 있는 것은 1970, 80년대 구좌파의 집단적인 참여이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UDP 이후 체제의 심각한 패배와, 국제적인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와 현실 사회주의의 위기라는 체로 걸러진(즉, 매우 완화된) 이데올로기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패배한 좌파세력은 구원판으로서, 따라서 충분히 무비판적으로 새로운 종족 내셔널리즘을 붙잡은 것이다.

어쨌든, 보다 생산적인 방식은 사회학적인 접근이다. 이것은 일련의 긴장, 투쟁 그리고 가끔은 정부 혹은 MAS 자체 내에서 후보직위와 직책을 둘러싼 예상 밖의 동맹을 관찰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이 밖에도 일정한 조합적·영토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각 부문, 구간, 지방 간 윤번 논리를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강력한 조합주의적 정치문화 틀 내에서 후견인주의와 보조금관행(prebendalismo)을 포함한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지도부의 다양한 성격의 조정에 의해 중재되는 의회주의적인 관행의 범주 내에서 벌어진다.[15]

또한, 국가적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 유용한, 부분적으로 대안적인 분류방식은 사회학자이자 전직 교육부 장관인 펠릭스 빠찌(Félix Patzi)의 제안이다. 그는 경제 관리를 담당하는(지적 혹은 정치적 대변자라기보다는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 내각의 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개혁적 자유주의자들', NGO로 옮겨온 전직 좌파들(현실적으로 사망했고, 또 어떤 사회적 토대도 갖지 못한 채 이 정부와 함께 소생하기 시작했던, 그러나 과거 공산당과 같은 경향성의

15) Pablo Stefani y Hervé Do Alto, "El MAS, un partido en tiempo heterogéneo," documento de trabajo, PNUD, Coloquio "Democracia interna en la elección de candidatos del Movimiento al Socialismo(MAS) para las elecciones del 6 de diciembre de 2009. Resultados y hallazgos preliminares," La Paz, 2009. 12. 19.

전직 당원들), 그리고 '원주민주의 혹은 인디헤니스모' 라는 세 번째 경향 사이에서 두드러진 인물이었다. 이 세 번째 경향은 정부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대외정책의 주요 기조를 결정하는 데는 소외되어 있었지만, 아이마라족의 알티플라노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던 외무장관인 다빗 초께우안까를 제외하고), 신헌법 작성에서 중요하게 개입 했다(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보다 급진적인 진영에 의해 수정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마지막 경향이 작금의 정치 과정이 진행되는 상징적이고 정신적인 공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몇몇 원주민주의자 그룹은 에보 모랄레스 주위의 '백인혐오(blancoide)적 환경'에 대해서까지 말한다.[16]

II. 빈민 내셔널리즘(nacionalismo plebeyo)의 전제

식민 시기부터 원주민 세계의 변화는 매우 복합적이다. '군도적' 형식을 취하고 있던 공동체 생활의 생태적 토대는 다양한 생태학적인 층위들을 통해 확장되어 왔지만, 식민적 변형, 국경의 분리 그리고 민간 아시엔다에 의해 파괴되었다.[17] 원주민 공물제도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 중요성이 상실되자,

16) *Willka* 1호를 보시오. 표지의 제목은 "백인 혐오적 환경, 과두층의 재절합 그리고 원주민 운동 사이의 에보 모랄레스" 이다. Centro Andino de Estudios Estratégicos, El Alto, primer semestre de 2007.

17) "현재 상황과 주목할 만하게 대조가 되는 첫 번째 특징은 옛 아이유가 영토적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안데스 대지를 '군도'처럼 산재시켰다는 것이다. 소속된 기반은 어떤 지속적이고 확정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상의 사실적 혹은 허구적인 가계였다. 다양하고 차이가 있는 기후들에 접근할 수 있을 때(다양한 생태학적 층위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동일한 아이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식생과 자원의 상호보완을 보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유는 규칙적으로 —기후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농업, 수산 그리고 수공예 생산물들을 얻었다. 이것이 효율적인 저장시스템과 함께 종합적인 복지의 토대가 되었다. 오늘날 "광범위한 수준의 아이유가 존재하지만, '근대적인' 조직들(조합, 국가 기구 등)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 근대적 조직들은 자주 전통 조직들 위에 겹쳐지고 있으며, 이 조직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역할의 겹침, 아이마라 족의 전통 조직의 점차적 약화 등 자주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 (...) 옛 아이유와 결합된 공동체적 조직은 오래된 혹은 새로운 이름들을 지니고 있으며, 최상층의 단위에서 '근대적' 조직들이 지배를 형성하게 되면서 최소 단위, 혹은 가끔 중간쯤의 수준에서 뿌리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William Carter y Xavier Albó, "La comunidad aymara: un mini-estado en conflicto" en X. Albó, *Raíces de América; El mundo Aymara*, Alianza Editorial, Madrid, 1988. 아이유의 지속성에

아이유(ayllu)에 대한 파괴적이고 자유주의적 공격이 손쉬워졌고, '식민적 계약'이 파괴되었으며,[18] 아시엔다 체제가 강화되었다. '탈식민적' 목적에 비추어 상황이 보다 악화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던 때는 식민 시기보다 오히려 공화국 시기(19세기)였다. 존 무라(John Murra)가 잉카제국에 병합되기 이전의 아이마라 족을 부르는 것처럼,[19] "과거의 자유로운 아이마라 족"의 삶을 종족역사에서 잠정적이라도 거의 재구축하지 못하고, 또 수세기에 걸친 식민 지배 동안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강력한 신크레티즘과 복합적인 정신적 지배가 파생되면서 탈식민적 기획은 매우 어려워졌다. 이 탈식민 기획을 빠찌는 기회의 균등 그리고 도시 영역에서 "공동체적 생산 방식"의 보편화라고 정의했다.[20]

그러나 볼리비아 비공식 경제에서 '직접 노동'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도시 공동체주의 테제는 곧잘 촘촘하게 짜인 정치, 경제, 사회 조직 내에서 노동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을 은폐한다. 이 조직이 자본주의로의 이행 과정의 일상생활을 다루는 역사가들에 의해 묘사된 빈민 세계와 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한 조직은 공동체적이지만, '근대' 시장 경제, 더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와 복합적인 방식으로 결합된 일련의 무기력을 재생산하고 있다. 엘알또(El Alto)의 "아이마라 도시"는 이 빈민 세계의 패러다임적인 예이다. 대다수가 소규모 공장에서 일하는 47%에 달하는 노동자, 그리고 47%는 자영업(상업은 경제활동의 30%에 달한다)에 종사한다. 농촌 정서를 가진 이 도시에서 두뇌와 심장은 에보주의에 의해 정복되었다. 즉,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80%를 상회한다.

대부분 미국 수출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소규모기업(이중 많은 것은 섬유)에 해당하는 약 5,000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엘알또는 볼리비아의 제2의 산업도시이다.[21] 전임 시장인 호세 루이스 빠레데스(José Luis Paredes)가 미국과의

관해서는 다음 텍스트를 참고. Silvia Rivera Cusicanqui y Equipo THOA, *Ayllus y proyectos de desarrollo en el norte de Potosí*, Auwiyiri, La Paz, 1992.

18) Tristán Platt, *Estado boliviano y ayllu andino*, IEP, Lima, 1982.

19) John V. Murra, "*El aymara libre de ayer*" en X. Albó(eds.), ob. cit.

20) 인터뷰. La Paz, 2009년 10월. Maristella Svampa, Pablo Stefanoni y Bruno Fornillo, *Balance y perspectivas. Intelectuales en el primer gobierno de Evo Morales*, Ediciones Le Monde diplomatique edición boliviana, en prensa.

21) Franck Poupeau의 자료 "El Alto: une fiction politique. *Alto markaxa wali puq'antata jiwa jich'awa*," La Paz에서 2009. 9. 20. 개최된 'L'université de tous les savoirs, des Andes à l'Amazonie' 컨퍼런스에 제출된 발표문. Gonzalo M. Vidaurre Andrade,

자유무역협정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면서 '저항 도시 엘알또'에서 몰표를 받았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는 과거의 추억인 노동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엘알또의 지역노동센터(Central Obrera Regional)가 강력한 동업자 조합의 한 사업가에 의해 지도되었다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니다. 어쨌든 이런 빈민 세계는 국가와 볼리비아노동자연합(COB) 사이의 1952년 공동정부의 토대가 되었던 '조직된 노동 계급'과 달랐다. 그러나 뒤범벅이 된 인류학적 정치 공간에서는 농촌의 원주민 공동체와도 차이를 보였다.

엘알또는 국가에 의해 주변화 된 도시 공간 특유의, 그리고 주민들에 의해 '스스로 건설된' 탄탄한 사회조직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민 문화의 자율 영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다양한 모습들'을 재생산한다. 이런 모습은 가족, 이웃 그리고 동료애 특유의 강력한 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굶주리고, 위기와 결핍의 시기에 소규모 생산자들이 손쉽게 의지할 수 있던 이런 연대를 정당한 방식으로 생산 혹은 재생산"해왔다. 그러나 이런 연대가 평등주의적인 유토피아로는 이끌지 못했다. "사회적 차별과 신분 상승의 과시가 서민층 사이에서도 느껴졌다."[22]

전통적으로 정부 통제 바깥에 있던 강력한 '비공식 경제'(밀수와 짝퉁산업을 포함해)', 비국가적 공적 공간과 친분관계의 네트워크, 치안부재로 인해 엘알또에서 나타나는 범죄자에 대한 사적 처벌이라는 공동체적 정의의 변형, 문화적(꿈비아[cumbia], 힙합, 레게의 광범위한 영향) 그리고 종교적 혼종화(오순적 교회의 확장),[23] 원주민주의 선언이나 고전적인 반유대인 팜플릿을 가지고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책 '호객꾼', 공적 공간 내의 협업적이고 조합적인 직업 논리, 그리고 전투적 광업 자본의[24] 생활 활동가들로의 변화 등 이 모든 공간들이 2003년부터 볼리비아에서 작동하고 있는 빈민 세력화의 기층 토대를 형성한다.

"Documento de trabajo número 5;Análisis del dessarrollo empresarial en las MIPYMES y análisis de la utilización de las TIC," Cámara de Comercio de La Paz, diciembre de 2005.

22) Hans Medick, "Plebian Culture in the Transition to Capitalism" en Raphael Samuel y Gareth Stedman Jones(eds.), *Culture, Ideology and Politics*, History Workshop Series, Routledge & Kegan Paul, Londres, 1982.

23) 사회학자인 홀리오 꼬르도바(Julio Córdova)는 2001년 가구조사에 토대한 증가율을 따라가면서, 엘알또에서 개신교수가 20%에 달한다고 지적한다.(1960년에는 1%였다). "쉽게 오순절 교회 수는 엘알또에서 400개를 넘어섰다." 인터뷰, La Paz, 2009년 9월.

24) F. Poupeau, *Dominación y movilizaciones. Estudios soviológicos sobre el capital militante y el capital escolar*, Feapeira, Buenos Aires, 2007.

파르타 채터지(partha Chatterjee)가 "피지배자들의 정치학"에 부가한 많은 특징들 —가능성과 한계들— 을 가지고 말이다.[25]

차빠레는 도시와 점점 더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즉, 자식들을 도회지에 유학 보내는 농민수의 증가, 메스티소 세계의 변화(강력한 이주 흐름의 당연한 결과), 문화적·종교적 혼종화, 사회적 분화, 코카관련 사업 특유의 경제적 유동성 증가 등은 빈민 세계에 대해 묘사된 특징의 일부분을 재생산한다. 이 부문들은 자주 합법성의 틀 내에서 열정적으로 정부의 재분배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예를 들어, 사회보장 쿠폰[bonos sociales]), 세금 징수 혹은 노동권 적용 등 정부의 어떠한 통제 시도에도 단호하게 거부해왔다.

정치적 관점에서 1990년대의 이 '범벅된(Zavaleta)' 혹은 '이종적인 시기(Chatterjee)'의 볼리비아를 표현하는 정당은 애국행동(Condepa)이었다. 메스티소 민속학자이자 방송인인 "대부(Compadre)" 까를로스 빨렌께(Carlos Palenque)가 민족적 구좌파 그룹의 지원과 함께 이 정당을 지도했다. 그는 오순절 목사들의 텔레비전 설교 기술을 이용하여 엘알또와 라빠스의 정치 영역을 깊게 변화시켰던 촐로성(lo cholo, 도시 원주민)의 부활을 통해 강력한 세력을 만들어 냈다. 두 도시에서 애국행동의 세력 형성은 정부에 대한 일종의 민중적 독식을 표현하며, 녹봉제의 '민주화'와 함께 행정적 비효율성과 부패의 번성으로 특징지어 진다. 그러나 "대부" 빨렌께에 대한 맹목적 지지는 상처의 복원과 정체성의 재긍정이라는 진정한 운동을 만들어냈다(그리고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거의 전례가 없는 사회적 소요를 유발했다). 애국행동의 당원 대부분이 MAS의 엘알또와 라빠스 지역 핵심지지층을 형성했다. 이 MAS가 바로 오늘날 부분적으로 종족화된 민족민중운동으로 표현되는, 그리고 볼리비아 역사에 있어 매우 비싼 비용을 치렀던 재형성적 열망을 2006년 권력 장악시기부터 다시 선택하여 국가의 진정한 재개조를 시작했던 정당인 것이다. 1952년 체제와 '역사적인 소통'을 달성한 것은 MIR가 아닌 MAS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할 지라도 원주민들의 전투적 행진, 자연 자원의 국유화,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계급 동맹(민중, 국가주의자, 애국적 기업인 사이의)과 같은 그들의 정책과 의식을 MAS가 오늘날 다시 받아들였다면, 70년대와 80년대에 이러한 소통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던 세력은 MIR였다.

---

25) *La nación en tiempo heterogéneo*, Siglo Veintiuno Editores/CLACSO, Buenos Aires, 2008.

III. 개발주의적 환상 대 공동체적 환상

이 새로운 모델을 묘사하기 위해 기차 메타포를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국가적-생산적"이라고 정의한 사람은 부통령이던 알바로 가르시아 리네라였다.

> 사회를 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국가이며, 국가는 모든 의지를 통합하고 전략적 틀을 기획하며, 또한 경제 기관차의 첫 번째 칸이다. 두 번째는 볼리비아의 민간 투자이다. 세 번째는 외부 투자이다. 네 번째는 소규모 기업이고, 다섯 번째는 농촌 경제, 여섯 번째는 원주민 경제이다. 이것이 볼리비아 경제가 구조화되어야 하는 전략적 체계이다.[26]

"위대한 경제적 도약과 사회적 보호자로서 국가라는 우리의 지평, 그리고 탈식민화와 자주성의 전개라는 우리의 지평은 보다 빠르고, 보다 단호하며, 보다 확고하다"라고 보다 최근에 밝혔다.[27]

첫 번째 객차가 공동체적 경제(몇몇 탈식민주의자들이 열광하는 것 같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기차가 국가 자본주의의 보다 '다문화적' 변형을 은유적으로 대표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것이 2003년 이후, 특히 2006년 이후 강화되어온 이데올로기적인 분위기와 조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볼리비아에서 역사적으로 민족-민중적 헤게모니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유일한 하위 대안 세력인[28] 구좌파 노동주의자는 광산 노동계급의 위기와 함께 자신의 존재적 한계에 이를 정도로 약화되었다. 그러나 공동체적 좌파의 '사회주의적' 프로그램 역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 공동체적 좌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가르시아 리네라, 펠릭스 빠찌, 그리고 90년대의 몇몇 그룹들이 출현했다. "베라 자술리치에 보낸 편지들"같은 마르크스의 몇몇 텍스트에서 영감 받은 이들은 원주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결합을 시도했다. 결국, 종족 내셔널리즘(etnonacionalismo, 혹은 보다 정확하게 부분적으로 종족화된 민중적 내셔널리

---

26) Pablo Ortiz, "Fue un error no liderar el pedido autonómico," Álvaro García Linera와의 인터뷰. El Deber, Santa Cruz de la Sierra, 2007. 1. 21. www.eldeber.com.bo/2007/2007-01-21/index.php.

27) "No hay una agenda oculta: la Constitución respeta la propiedad," cit.

28) René Zavalta, *Lo nacional popular en Bolivia*[1986], Plural, La Paz, 2008.

즘)이 담론 공간을 차지하고, 친정부적 공통 의미가 되었다.[29]

언급한 것처럼, 민중/과두층 사이 혹은 민족/반민족 사이의 분리가 다시 무대에 등장했다. 생-뛰빼리는 '21세기 사회주의'의 새로운 정부들은 사회경제적 갈등 논리와 근대세계에서 계급투쟁이 갖는 문명적인 성격에 대한 일정한 이해불능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민중 부문들에 의해 연출된 갈등들을 포함해서 몇몇 갈등들은 민중의 추정적인 이익과 관련해 사전에 정치적으로 결정된 공동선에 반대하는 타락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 이러한 윤리적 근본주의가 국민투표에 의한 민중적 지지 그리고 권력의 빈민적 정당성의 극화에 의존하고자 할 때, 규정들이 갈등을 만들어 내고, 이 갈등들이 규정들을 재구조화하고 또 행위자 자신들과 이해들을 변화시키는 공적 공간의 사회적 건축으로서 민주적 제도성이라는 동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 일정하게 무시하는 듯한 경향이 있다.[30]

이처럼 전형적으로 민중적-협업주의적인 갈등이 우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혹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논리로 의사들과 교사들의 파업시기가 간과되었던 것은 낯선 것은 아니다. 즉, 농민주의적인 논리는 대략 맹목적인 방식으로 공무원들을 특권층으로 곧잘 간주했다.

마리스떼야 스밤빠는 다양한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메트릭스들의 절합, 수렴, 충돌을 강조한다. 이런 메트릭스 사이에서 민족적-민중적인 메트릭스와 원주민주의적-공동체적 메트릭스가 두드러진다. 결국,

> 이른바 '중반기의 기억(memoria mediana, 1930, 40, 50년대의 경험)'에 자리 잡고 있는 민족적-민중적 메트릭스의 지속은 세 겹의 축에 기대는 경향이 있다. 즉, 민족과 재분배적이고 조정자적인 국가의 긍정, 카리스마적인 지도력

---

29) 에보 모랄레스의 반(反)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반신자유주의와 동의어이다. 정부의 거시경제적 신중함에 대한 IMF의 칭찬은 충분히 징후적이다.

30) M. Saint-Upéry, "¿Hay patria para todos? Ambivalencia de lo público y 'emergencia plebeya' en los nuevos gobiernos progresistas" en *Íconos, Revista de Ciencias Sociales*, núm.32, 2008.9.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Juan C. Portantiero y Emilio De Ípola, "Lo nacional popular y los populismos realmente existentes," *Nueva Sociedad*, núm. 54, 1981. 5-6.

그리고 민중이라는 조직화된 대중이 그것이다. 이 메트릭스의 동학은 지도자와 함께 민중에 의해 지도되는 혁명적 내셔널리즘 기획, 그리고 지도자의 방향성과 국가적 후견에 의해 제한된 참여적 기획 사이의 긴장에 위치하고 있다.[31]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원주민주의 혹은 저항과 집단적 권리 그리고 공동권력적 사유를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결합한 반(反)식민적 '장기기억('만들어진 전통'의 변화가 능한 요소들을 포함한)'이 존재한다. 즉, 1953년 농업개혁의 결과로 만들어진 소농장(minifundio)의 소유주인 고지대의 소규모 아이마라족 농부들과 원주민 공동체 토지(Tierras Comunitarias de Origen, TCO)의 집단적인 이해 당사자들인 저지대의 원주민들(앞 사람들은 이들을 "원주민 지주"라고 불렀다) 사이의 긴장이 존재한다. 이것은 민족을 '문자 그대로' 원주민적인 '다른 관점'에서 상상하거나 혹은, 혁명적 내셔널리즘을 배제하거나 '자유주의적'이라고 간주하는 원주민적/서구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상상하는 것이 매우 복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 중 하나이다.

같은 의미에서 에보 모랄레스의 담론적 양가성은 명백하다. 그는 국제회의 석상에서 자신을 빠차마마(Pachamama, Madre Tierra)의 단호한 방어자로 나타낸다. 반면에, 볼리비아 내부를 향해서는 원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NGO를 비난하면서, 아마존의 유전 개발과 같은 개발주의적이고 생산주의적인 고전적 입장을 옹호한다. 2009년 12월 6일 실시된 대선을 위한 MAS의 프로그램은 핵심 축으로, 일련의 국영 공장과 투빡 까따리(Tupak Katari)로 명명된 통신위성의 발사까지를 포함하여 일종의 5개년 계획인 '오년 내 국가 산업화'를 제안했다. 이런 방식으로, 볼리비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산업주의적 청사진과 지대추구적(rentista) 현실[32] 사이의 간극을 다뤘다. 이 문제는 부분적으로는 국유화한 경제를 효율적으로 다룰 능력이 없는 국가의 전통적인 취약성에서, 그리고 보조금적인 메트릭스에서 기인한 국가 전체의 지속적인 좌절감의 원천이다. 더욱이, 자원의 추출과 결합되어 있던 이런 지대추구적 정신 상태와 연결된 개발에 대한 '순진한' 관점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개발주의적인 목표를 달성하

31) M. Svampa, "Mouvements sociaux, matrices socio-politiques et nouveaux contextes en Amérique Latine" en *Problèmes d'Amérique Latine*, núm. 74, otoño de 2009. (스페인어 판, R*evista Paraguaya de Sociología*, en prensa)

32) Fernando Molina, *El pensamiento boliviano sobre los recursos naturales*, Pulso, La Paz, 2009.

는 데 필요한 교육적-과학적-기술적 종합체에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이런 상상력은 개발주의적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 비개발주의적 노선은 서구적-자유주의적인 '보다 더 잘살기' 대신에 '잘살기(sumaj qamaña)' 같은 '빠차마마적(pachamámica)'인 수사학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주의적 환상과 공동체주의적 환상 사이의 논쟁은 빈약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와 달리, 그리고 아마도 80년대 하이퍼인플레이션 경험의 트라우마로 인해, 정부가 거시경제 영역에서 신중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국가의 생산적이고 재분배적인 역할의 회복은 볼리비아가 경험하고 있는 엘리트의 교체라는 프레임 내에서 효율적인 탈신자유주의적인 기획의 토대를 대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순수한 의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또한 국가 자본주의와 1950년대적인 감수성(그리 많지 않은 다문화성에 표현된 주변부적인 원주민주의 색채를 지닌)에 대한 무비판적인 회귀는 1952년 체제를 붕괴시켰던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이것들 중에서, 사회적 상승의 원천으로서 국가의 빈민적 점유, 국가에 대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의 심도 있는 개혁을 수반하지 않은 보조금주의의 '민주화' 등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좌파로 선회한' 모든 새 정부들의 문제이다). 살펴본 것처럼, 성장은 양질의 고용을 만드는 데 충분하지 못했고, 또한 빈곤을 종식시키는데도 충분하지 못했다(심지어 극빈곤층도 종식시키지 못했다).

부가하자면, 일정한 이데올로기적인 과잉행동에 덧붙여진 항구적인 선전 논리는 포스트신자유주의의 제도화에 과도하게 대항하고자 했다(이것이 정부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에보 모랄레스의 두 번째 임기동안의 도전처럼 보인다. 성장의 효율과 해방적 성찰적 유토피아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라는 도전 말이다. 보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사회적 포섭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개발과정을 위한 토대로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혹은, 슬로건이 말하듯이, 아직 달성되지 않은 하나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하나의 국가"를 위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유일한 기회가 열렸다.

(이성훈 번역)